

전주시 경제사절단,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베트남 하노이 수출상담회 통해 200만 달러 수출 계약 달성·864만 달러 규모 상담 성과

우범기 전주시장이 하노이와 호치민 등 베트남 현지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며 '전주시 1호 세일즈맨'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6차 7일 일정으로 베트남 2개 지역을 방문한 전주시 경제사절단이 전주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판로개척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5일 우수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통해 현지 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수출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상담회에는 △(주)메디엔리서치 △(주)바이오엔진 △(주)휴먼피코스텍 △(주)오기 △(주)에어랩 등 7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시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200만 달러 수출 계약과 더불어 51건(86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이끌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하노이와 호치민 등 베트남 현지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며 '전주시 1호 세일즈맨'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 시장은 또 베트남 내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현지 유통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연일 세일즈의교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우 시장은 지난 7일 베

트남의 수출 전문기업인 JY GLOBAL, 유통 전문기업인 태백유통과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전주시 중소기업 제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태백유통은 호치민에서만 200개 매장에 식품 등을 납품하는 소비재 전문 유통기업이며, JY GLOBAL은 정부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베트남 호치민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과 컨설팅 등의 판로지원이 이뤄지게 된 만큼 현지 진출을 위한 수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 시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 중 SIHUB(Saigon innovation Hub)를 찾아 베트남에 진출하는 전주 지역 기업 지원 및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하노이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수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이라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뒀다"며 "앞으로도 베트남을 비롯해 전주시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 126주년 기념 사진전이 '그때, 예수병원 사람들' 주제로 예수병원 본관 2층 로비에서 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열린다.

예수병원 126주년 기념 사진전

'그때, 예수병원 사람들' 주제 내달 27일까지 개최

예수병원 126주년 기념 사진전이 '그때, 예수병원 사람들' 주제로 예수병원 본관 2층 로비에서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예수병원에서 지난 30년간 예수병원 지역사회 보건과와 홍보실에서 근무 후 퇴직한 전 한일장신대 대학원 객원교수인 김천식 문학박사가 사진 제공 및 자료 설명을 도왔다.

이 단상시 예수병원 사람들 등 3개 테마로 구성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주요 작품으로는 예수병원 마티 잉골드 초대 원장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마지막 기념사진, 민간보험을 최초로 안착시킨 권익수 행정부장과 행정원들, 1960년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시작한 소아과 의사 윌슨과 의료진, 1912년 최초의 서양식 예수병원 등 진귀한 사진을 만나 볼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제7회 전주 콘텐츠 페어 열려

디지털콘텐츠 전시·메타버스 XR기술세미나·투자자컨설팅 등 진행

전주지역에서 제작된 디지털콘텐츠의 우수성을 조명하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 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축제가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7~8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대사습장에서 '2024년 제7회 전주 콘텐츠 페어'를 개최했다.

'콘솔페어: 콘텐츠미술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전북메타버스 지원센터에서 제작지원한 우수한 디지털콘텐츠가 전시돼 사용자의 즉각

적인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 개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B2C(Business to Consumer)의 장으로 꾸며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콘텐츠 전시관 △XR·메타버스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먼저 지역기업 콘텐츠 전시관에는 전주지역 디지털콘텐츠 우수기업 7개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일례로 스타라이크(주)는 홀로그램 기반의 버추얼 싱어 VR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VR'로 실감형 공연 콘텐츠의 가능성을 선보였으며, (주)퀵이브의 '한



옥마을 메타버스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올해 콘텐츠 페어에서는 첫날 '네트 메타: AI, 공간 그리고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XR·메타버스 융합기술 세미나도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알서포트의 남산 XR스튜디오 등 주요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기술 트렌드와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콘텐츠 산업 동향에 대해

전문가와 참가자 간 심도 있는 정보가 오갔다.

이와 함께 이번 콘텐츠 페어에서는 투자유치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지난날 열린 'XR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콘텐츠인 '전북을 세계로: 새로운 만남의 시작' 등 5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김중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콘텐츠 페어가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협업을 통해, 전주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 청문회... '적합' 의견

전주시의회가 지난 8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의견을 내고, 이를 전주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청문회 후 두 번째다. 당시 의회는 해당 기관 임명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고, 전주시는 지난 9월 원장 채용 공고 절차를 다시 거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위원장에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에 채영병 의원을 비롯해 김원주·박선진·양영환·이남

숙·이상국·최명권·최명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로 추천된 허전(59)씨에 대한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또 의원들은 노사문제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직원 소통 방법 등 조직 운영 방안과 전주시 강점 특화산업 발굴 및 발전 계획 등 직무 수행 능력도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원장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에 자체 행사와 소방업무 유공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의 날은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전국 소방공무원과 소방가족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등 104명과 소방의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전주시민여성합창단 18명이 자리한 가운데 소방의 날 자체 행사를 개최하



고,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그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을 준 민간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소방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자 등 총 41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도지사 표창 등을 전수하고, 전주덕진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8명의 전주시민 여성합창단 축하공연 △개시 및 국민 의례 등 내빈 소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 영상 시청 △41명의 유공자 표창 △2부행사의 몸장소방관 연례 및 덕진노래자랑 행사 △스레식 및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김옥기 기자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자치도연합회, 해피나눔박스 기부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배희곤)은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자치도연합회 후원으로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해피나눔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치, 장류, 식료품 등 7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된 해피나눔박스 50박스(350만 원 상당)는 관내 돌봄이 필요한 50세대에게 전달됐다.

이날표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자치도연합회 회장은 "힘들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따뜻하고 포근



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